



- 그동안 우리 보험사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할 수 없어 모델개발시 호주 등 해외의 자료를 이용하였으며, 이로 인해 우리 소비자에 맞는 건강보장 모델을 개발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.

#### ※ 보험업권 공공데이터 활용 관련 논의 경과

- ('17년) 「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」에 따라 공공데이터를 이용하였으나, 명확한 법적근거 및 데이터 보호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 제기
- ('18년)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범정부 TF, 당정청 협의 등을 거쳐 「데이터 3법」 개정안\* 발의(개인정보보호법, 신용정보법, 정보통신망법)

\* (i)가명정보 이용 및 데이터결합 근거 마련, (ii)가명정보 재식별 시도 등 법령상 의무 위반시 징벌적 과징금 부과, (iii)금융분야 마이데이터 도입 등

- ('20년) 「데이터 3법」 국회 통과('20.2월)로 가명정보 이용의 법적근거 마련, 이후 보험업권 공공데이터 활용 관련 관계기관 협의 추진\*

\* 금융위, 복지부, 보험업계, 심사평가원, 건강보험공단 등

## 2. 기대효과

- 앞으로 6개 보험사는 공공데이터 분석을 통해 기존 보험시장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고령자·유병력자 등을 위한 모델개발을 중점 추진할 예정입니다.

- 기존에 보장하지 않았거나 보장시에도 보험료가 높았던 질환 등에 대한 정교한 위험분석을 통해 보장범위를 확대하고 보험료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.\*

\* (예) (i)당뇨 합병증 보장상품 개발, (ii)고령자 대상 치매장기요양 관련 상품 개발, (iii)뇌혈관 질환환자 관련 연구·분석을 통한 보장상품 개발 등

- 일본, 핀란드, 미국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이미 공공데이터 활용을 통해 희귀질환 보장 강화, 헬스케어 산업 성장 등 효과가 확산중입니다.

① (미국) 보험사가 의료데이터 분석을 통해 희귀질환 고위험(예: 복부대동맥류) 환자를 사전예측, 조기 치료로 연결하는 시스템 개발

② (일본) 고령화에 대응하여 정부주도로 의료데이터센터(JMDC)의 공공의료데이터를 개방, 보험사는 이를 기반으로 건강나이 기반 보험상품 개발

③ (핀란드) 헬스케어, 바이오 등 산업 육성을 위해 전 국민 의료정보를 암호화하여 개방

④ (남아공) 보험사가 의료데이터 활용을 통해 당뇨 보장상품 개발

- 금융위원회도 공공데이터 활용의 긍정적인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모델개발 과정에서 보험업계 및 보건당국과 긴밀하게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.

※ 보험업계는 심사평가원 외에 **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공데이터 이용**을 위한 신청절차도 진행중




### 3. 향후 계획

- 금융위원회와 보험업계는 ‘국민 삶의 질 향상’이라는 공공데이터 개방의 본래 취지\*를 잘 살릴 수 있도록 「보험업권 빅데이터 협의회」를 구성·운영할 계획입니다.

※ (공공데이터법 제1조)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·관리하는 데이터의 제공 및 그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을 보장하고,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- 빅데이터 협의회\*를 통해 공공데이터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관리체계 구축, 모델개발 사례 공유·발표 등 책임성 있는 공공데이터 이용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.

\* 7.13일 “보험업권 헬스케어 활성화 TF” 논의를 거쳐 「보험업권 빅데이터 협의회」 구성·운영 계획을 구체화할 예정

  <p>공공누리 공공지각물 자유이용허락</p>	<p>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 <a href="http://www.fsc.go.kr">http://www.fsc.go.kr</a></p>	<p>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@korea.kr</p>	 <p>1339 법령관리청 콜센터</p>
--	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

“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”